

문화행사 대전시의 첨단과학기술과 지역전통문화 등을 주제로 하는 축제로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대전국제와인페어, 견우직녀축제, 전국합창경연대회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유성온천문화축제, 금강로하스축제, 동춘당문화제, 우암문화제, 정월 대보름 행사와 민간에서 추진하는 계족산 맨발걷기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있다

관광 '주랜드+플라워랜드+조이랜드'를 복합적으로 구성해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합테마 공원으로 조성된 오-월드, 전국 유일의 '효'테마공원인 뿌리공원, 1994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유성온천, 능능정이 문화의 거리(스카이로드), 한밭수목원, 장태산 자연휴양림, 대청호오백리길, 계족산항토길, 대전둘레산길 등의 관광지가 있다.

대전의 관광영소를 저렴한 가격으로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지역순환관광 프로그램인 대전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숙박시설인 관광호텔은 20개소로 1천771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자매결연도시 11개국 13개 도시로서 중국 난징·선양, 미국 시애틀, 헝가리 부다페스트, 일본 오다·삿포로, 캐나다 캘거리,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웨덴 읍살라, 러시아 노보시베르스크시, 호주 브리즈번시, 베트남의 빈증성,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장〉 김인식

〈부의장〉 황인호, 심현영

〈정당별 의원 현황〉 더불어민주당 16명, 새누리당 6명이다.

의안처리 정례회 2회(제1차 28일, 제2차 42일), 임시회 4회(58일) 등 총 6회 12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266건, 예산 및 결산 12건, 동의안 28건, 결의안 6건, 규칙안 4건, 건의안 23건, 의견청취 9건, 기타(보고) 74건 등 모두 42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 48개 부서·기관을 감사해 그 중 시정요구 76건, 촉구 65건, 건의 161건, 검토 168건 등 총 470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예산심의 본예산 1회, 추경 3회에 걸쳐 총 4차례 심의했으며, 2016년도 대전광역시 본예산 3조8천546억원, 교육비특별회계 1조6천102억원을 확정하는 등 총 5조4천648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9명), 행정자치위원회(5명), 복지환경위원회(5명), 산업건설위원회(6명), 교육위원회(5명)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9명),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8명), 윤리특별위원회(8명), 시민안전특별위원회(7명),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8명)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상황실'을 운영해 29건의 의견을 접수·처리했으며, 진정 및 인터넷 민원을 통해 시민 불편과 고충 68건을 되짚어보고 해결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했다. 또한, 다양하고

생생한 의정활동 정보를 담은 의정 소식과 인터넷 방송, 본회 의장 개방(2천188명 방청) 및 의정홍보관 운영(7천4명 견학)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의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다양한 의정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생활의정 실천 원도심활성화 연구회 등 연구회가 있고, 상임위 소관업무 중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책을 주제로 58회의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사업과 생활현장을 방문해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는 '생활 의정'을 실천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대전광역시회의의원 행동강령조례,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조례,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 등 113건의 안건을 의원 발의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했다.

시민·소외계층 배려 성락사회복지관 등 11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거동 돌보기, 위문품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했다.



울산광역시

市花 : 장미 市鳥 : 백로

市木 : 대나무 캐릭터 : 해물이

시청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시장 : 김기현(金起炫)



개관

연혁 선사시대 이래로 넉넉한 생활의 터전을 형성해 온 울산은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했으며 신라 제5대 파사왕 때 굴야화촌에 현을 두고 남쪽에는 생서랑군, 동쪽에는 동진현, 언양지방에는 거지화현을 두고 있었다.

이후 고려 태조 때 하곡, 동진, 오폭의 3현을 합해 흥례부(흥려부)로 승격시켜 비로소 한 고을로서 오늘의 기반을 구축했으며, 성종 14년(995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국을 449현으로 분할하면서 흥려부를 공화현으로 낮추고 별호를 학성이라 했다.

조선 태종 13년(1413년)엔 울주를 울산으로 고쳐 처음으로 '울산'이라는 칭호가 등장하게 됐다.

선조 31년(1598년) 울산도호부로 승격됐다가 고종 32년(1895년) 울산도호부가 울산군으로 개칭됐다.

근대에 들어 1914년 연양군이 울산군에 병합됐고, 울산의 태화강 이남의 삼산, 달동, 신정, 옥동지역을 합해 울산면으로, 하부면과 내상면을 하상면으로 하고 현남면과 현북면을 합해 대현면이라 개칭했다.

1931년에는 울산면을 울산읍으로, 1934년에는 동면을 방어진읍으로 승격시켰다.

1944년 대현면을 울산읍에 편입시켜 출장소를 뒀다가 1946

2016년도 울산광역시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계	일반 회계	특별회계		
			소계	기타 특별	공기업특별
합 계	3,234,398	2,407,507	826,891	258,105	568,786
지방세	1,299,200	1,299,200	-	-	-
보통세	1,136,200	1,136,200	-	-	-
취득세	425,400	425,400	-	-	-
등록면허세	10,700	10,700	-	-	-
주민세	3,000	3,000	-	-	-
자동차세	147,100	147,100	-	-	-
담배소비세	60,000	60,000	-	-	-
지방소비세	164,200	164,200	-	-	-
지방소득세	325,800	325,800	-	-	-
목적세	160,000	160,000	-	-	-
지역자원시설세	38,600	38,600	-	-	-
지방교육세	121,400	121,400	-	-	-
지난연도수입	3,000	3,000	-	-	-
세외수입	454,594	113,135	341,459	102,440	239,019
경상적세외수입	266,649	48,846	217,803	3,251	214,552
임시적세외수입	187,945	64,289	123,656	99,189	24,467
지방교부세	100,000	100,000	-	-	-
보조금	663,860	562,915	100,945	66,110	34,835
지방채	130,000	-	130,000	-	130,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86,744	332,257	254,487	89,555	164,932

년 다시 대현면으로 됐다. 이후 1962년 2월 1일 울산군의 울산읍, 방어진읍, 대현면, 하상면 전 지역과 청량면 두왕리, 범서면 무거·다운리, 농소면 송정·화봉리를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공포하고 1962년 6월 1일 위 지역을 울산시로 승격시키면서 울산군은 울주군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1973년 3월 12일 울주군 서생면을 동래군에, 울주군 두서면 소호리를 상북면에, 삼남면의 구수리를 언양면에 편입시켰다.

또, 1983년 2월 15일 울산군에서 동래군으로 편입됐다가 나중에 양산군으로 편입됐던 서생면이 울산군으로 재편입됐고, 1985년 7월 15일 구청제가 실시됨에 따라 중·남구가 설치되어 2구, 1출장소, 40개 동이 됐다.

그 후 1988년 1월 1일 방어진출장소가 동구청으로 승격(3구, 40개 동)됐고, 1991년 1월 1일 울주군이 울산군으로 변경됐으며, 1995년 1월 1일 울산시·군이 통합되어(4구, 14 사업소, 60읍·면·동) 광역시 승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1996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1997년 7월 15일부터 4구, 1군 체제의 울산광역시가 출범했으며, 1998년 3월 1일 동구 염포동이 북구에 편입됐다.

이후 2001년 3월 1일 울주군 온양면과 범서면이 읍으로 승격되어 울산광역시는 4구 1군, 4읍 8면, 46개 동의 행정구역 체계를 갖추었다.

2002년 8월 30일 남구 무거동 일부를 울주군 범서읍으로, 울주군 범서읍 일부를 남구 무거동으로 각각 편입시켰다. 2007년 2월 26일 무거1동이 삼호동으로, 무거2동이 무거동으로, 아음1장생포동이 아음장생포동으로, 아음2동이 대현동으로, 아음3동이 수암동으로 각각 행정동 명칭이 바뀌었다. 2009년 1월 1일 옥교동, 성남동을 중앙동으로 변경했으며, 전하3동이 전하2동에 편입됐다.

면적·인구·행정단위 면적은 1천60km²이고 인구는 119만9천717명이다. 행정단위는 4구, 1군, 56개 읍·면·동으로 구성돼 있다.

재 정

2016년 예산규모는 총 3조2천344억원이며 2015년도에 비해 3천172억원(10.88%) 증가했다. 일반회계 2조4천75억원(74.43%), 특별회계 8천269억원(25.57%)이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지방세 1조2천992억원(53.96%), 세외수입 1천131억원(4.70%), 지방

교부세 1천억원(4.15%), 보조금 5천629억원(23.3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천322억원(13.80%)이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5천688억원(68.79%), 기타 특별회계 2천581억원(31.21%)으로 편성됐다.

중점 추진사업

울산신항만 건설 울산신항만은 1997년부터 울산 남구 용연동과 울주군 온산읍 일원에 사업비 6조4천150억원으로 41석선, 방파제 7.8km, 배후단지 67만9천m² 규모로 조성 중이다. 현

울산광역시 면적·가구·인구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구 분	면 적(km ²)	가 구	인 구(명)			법 정 동·리	행 정 읍·면·동	통·리	반
			계	남	여				
합 계	1,060.96	451,688	1,199,717	621,515	578,202	190	56	1,535	10,542
중 구	37	95,710	247,016	126,040	120,976	18	13	302	1,985
남 구	73.02	133,669	349,328	178,392	170,936	19	14	427	3,157
동 구	36.04	68,359	181,207	97,220	83,987	8	9	228	1,465
북 구	157.33	67,469	193,737	100,582	93,155	27	8	219	1,974
울 주 군	757.57	86,481	228,429	119,281	109,148	118	12	359	1,961

▲ 2016년도 울산광역시 세출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항 목	예 산 액			
	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	공기업특별
합 계	3,234,398	2,407,507	258,105	568,786
일반공공행정	623,653	353,238	-	270,415
입법 및 선거관리	3,076	3,076	-	-
지방행정·재정지원	294,734	294,734	-	-
재정·금융	270,415	-	-	270,415
일반행정	55,429	55,429	-	-
공공질서 및 안전	56,413	56,413	-	-
교육	256,993	256,993	-	-
유아 및 초중등교육	-	-	-	-
고등교육	256,993	256,993	-	-
평생·직업교육	-	-	-	-
문화 및 관광	120,282	120,282	-	-
문화예술	45,994	45,994	-	-
관광	7,477	7,477	-	-
체육	46,567	46,567	-	-
문화재	20,244	20,244	-	-
환경보호	365,411	67,040	-	298,371
상하수도·수질	298,517	146	-	298,371
폐기물	33,465	33,465	-	-
대기	18,905	18,905	-	-
자연	1,645	1,645	-	-
환경보호일반	12,879	12,879	-	-
사회복지	747,510	669,099	-	-
기초생활보장	155,181	76,769	78,412	-
취약계층지원	105,596	105,596	-	-
보육·가족 및 여성	268,077	268,077	-	-
노인·청소년	180,451	180,451	-	-
노동	18,590	18,590	-	-
보훈	4,254	4,254	-	-
주택	15,361	15,361	-	-
보 건	29,541	29,541	-	-
보건의료	26,414	26,414	-	-
식품의약품안전	3,127	3,127	-	-
농림해양수산	63,605	63,605	-	-
농업·농촌	32,146	32,146	-	-
임업·산촌	21,606	21,606	-	-
해양수산·어촌	9,853	9,853	-	-
산업·중소기업	116,032	116,032	-	-
산업금융지원	8,948	8,948	-	-
무역 및 투자유치	17,474	17,474	-	-
산업진흥·고도화	88,388	88,388	-	-
에너지 및 자원개발	1,222	1,222	-	-
산업·중소기업일반	-	-	-	-
수송 및 교통	341,306	307,677	33,629	-
도로	215,068	215,068	-	-
해운·항만	110	110	-	-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26,128	92,499	33,629	-
국토 및 지역개발	302,162	156,098	146,064	-
수자원	23,412	23,412	-	-
지역 및 도시	82,358	79,289	3,069	-
산업단지	196,392	53,397	142,995	-
예비비	23,577	23,577	-	-
기타	187,912	187,912	-	-

재 34%의 공정률로 북항측 9선석, 남항측 13선석 총 22선석과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1단계 등 방파제 4.7km, 배후단지 1공구 24만2천㎡를 완료했다. 오일허브와 배후단지, 민자부두 등은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울산혁신도시 조성 1조390억원이 투입되어 울산 중구 우정동 298만㎡에 계획인구 2만 명 규모로 조성 중인 울산혁신도시에는 10개의 공공기관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8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한국에너지공단,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기관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 2009년부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청량면 용암리 일원 신일반산업단지 내 83만7천㎡ 규모로 조성하기 시작해 2015년 11월 준공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은 제조업으로 수출을 주 목적으로 하는 내국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물류업, 무역업 등이고 관세가 면제되거나 유보되고 각종 세제 혜택이 따른다.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사업은 1, 2단계로 나뉘어 2025년까지 울산신항 90만6천㎡의 부지에 1조9천377억원의 사업비로 2천840만 배럴의 상업용 저장시설을 구축하고 국제 석유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싱가포르를 잇는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현재 울산시 남구 용연 일대 앞바다에 1단계 사업인 북항사업이 2018년 목표로 990만 배럴 규모의 제품류 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매립공사가 진행 중이며, 2단계 사업인 남항사업은 울주군 온산 앞바다에 2025년까지 1천85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저장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가 집적한 연구특화단지로서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불리게 될 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된다. 학생,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배우면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5년간 전문인력 4천여 명,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200개사를 육성·지원한다.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는 연구 기능과 생산 기능이 융합된 127만8천㎡의 규모의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서 2014년 9월 공사에 착수해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있다. 테크노산업단지 내에는 UNIST와 울산대학교의 산학융합지구를 비롯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R&D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며, 총 48개의 R&D관련 기관(기업)과 40여 개의 산업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울산대교 건설 울산대교는 남구 매암동과 동구 일산동을 연결하는 3.52km의 교량으로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가 1.15km인 현수교와 2.37km의 접속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탑과 주탑 사이 구간만 주케이블에서 상판을 지탱하는 행어 케이블을 설치하는 단경간 현수교로 국내에서 최장, 세계에서 세번째로 길다. 2015년 6월 1일 개통되어 교통 체증 완화와 물류 이송,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인 산업기술을 보존, 전수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

장을 이루어낸 저력을 담아내는 상징적 시설이 될 것이다. 지난 2013년 현 정부의 울산지역 공약사업으로 유치해 남구 소재 울산대공원 일원에 건립된다. 건립 규모는 건축 연면적 8만 476㎡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어 국내 최대이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친환경전지융합 실증화단지 조성 미래 성장동력이 될 발전용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실증화단지로 두왕동 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구축된다. 부지 6천610㎡, 건물 3천792㎡의 규모로 구축되는 이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 수소품질 인증센터, 실증화 플랫폼 등의 기반 구축 사업과 실증화·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R&D사업으로 구성되며 2019년 11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진흥센터/ 그린카센터 건립 중구 우정혁신도시 지구 내 대지 면적 5천517㎡, 건물 연면적 2만4천558㎡에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로 세미나실, 연구실, 각종 회의실 등으로 구성된 과학기술진흥센터/ 그린카센터 건립을 2015년 11월 완공했고, 향후 지식기반 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 진흥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오토밸리로] 개설 산업물동량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과 국가경쟁력확보를 위해 북구 송정동에서 매곡동 일원에 총연장 4km의 6차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6년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 2011년 국비사업으로 확정되어 2013년 공사에 착공, 2016년 9월에 개통될 예정이다.

시립도서관 건립 울산의 대표 도서관이 될 시립도서관은 남구 산업로 585번길41(舊 여천위생처리장)에 건립된다. 건립 규모는 대지 면적 3만2천594㎡, 연면적 1만5천176㎡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다. 2015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12월에 착공해 2017년 12월에 완공 예정이다.

반구대암각화 보존 대책 2013년 6월 '가변형 임시 물막이' 설치 협약 체결 후 기술적·공학적 타당성 기초조사와 기본설계를 완료했다. 현재 물막이 설치 안전성 검증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반구대 암각화의 영구적인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2018년도를 목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준비해 가고 있다.

시청차미디어센터 건립 학생, 청소년들에게 방송의 생산,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시청자 참여 제작 프로그램 지원 등 방송의 공공성·지역성 강화와 미디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울산시청차미디어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북구 진장 명촌지구 내에 총 사업비 117억원을 투입해 1천400㎡ 부지에 연면적 2천3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5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2015년 6월 공사 착공해 2016년 10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강동권 개발 해안과 산악이 조화된 국제적인 수준의 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산하지구, 관광단지, 온천지구, 해안지구, 산악관광지구 등 5개 지구로 구분해 추진 중이다.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착공해 현재 99%의 공정률로 2016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관광단지는 8개의 테마로 2014년 12월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고시한 후 2016년 상반기 강동리조트 조성공사, 2017년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공사 착공 등 7개 지구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2018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5년 12월 강동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마스터플랜 및 투자유치 전략을 재수립해 공공 선도의 사업 추진과 투자방식을 다양화해 민간자본 유치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남알프스 관광 자원화 영남알프스를 차별화된 동남권 최고의 산악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증가하는 방문객을 위한 특화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영남알프스 마운틴탑 사업, 복합웰컴센터 준공, UNWTO 산악관광회의 개최, 세계산악영화제, 영남알프스 행복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을 통해 영남알프스를 세계적인 산악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은 2030년 인구 150만 명을 목표로 바람직한 미래상과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5년 12월 말 수립, 확정·공고했다.

5년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핵심 이슈를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친환경 안전도시, 문화·관광·복지도시로 설정했으며, 중심체계는 1도심 4부도심 7지역 중심체계로 해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4개 대생활권으로 통합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생활권 관리가 되도록 설정했다.

경제

조 세 2015년 지방세 징수현황은 총 1조7천600억원이며 세목별 징수현황은 취득세 4천525억원, 등록면허세 432억원, 주민세 713억원, 자동차세 1천887억원, 재산세 1천902억원, 담배소비세 772억원, 지방소비세 1천677억원, 지방소득세 4천18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12억원, 지방교육세 1천240억원이다.

공 업 전체면적 1천60km² 가운데 공업지역은 8만8천435m²이다. 현재 입주업체는 1천759개사이며 생산액은 209조2천805억원이며 고용 인원은 16만6천322명이다.

또한, 공장용지 확충을 위해 14개의 일반산업단지 1천41만1천㎡(매곡일반산업단지 55만6천㎡, 길천1차일반산업단지 53만2천㎡, 모듈화일반산업단지 86만3천㎡, 신일일반산업단지 242만3천㎡, 이화일반산업단지 69만6천㎡, 울산-high Tech Valley 22만7천㎡ 등) 중 10곳은 완료, 4곳이 조성 중에 있고 산업과 주거, 상업이 공존하는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해 조사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농공단지 4곳 59만5천㎡는 가동 하고 있다.

유통 2015년 말 현재 백화점 3곳, 대형마트 12곳, 쇼핑몰 5곳, 농수산물도매시장 1곳, 농수산물유통센터 1곳, 전통시장 54곳 등이 있으며,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형시장, 골목형시장 등 특성화를 통한 전통시장 육성과 전통시장에 아케이드와 주차장을 설치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주 택 2014년 12월 말 현재 총 44만4천766호로 이 가운데 단독주택 17만1천454호, 아파트 24만5천317호, 연립주택 7천

647호, 다세대주택 2만348호로 주택보급률은 109.3%이다.

건설업 종합건설업 업체 수는 227개사, 등록 업종 수는 251개이며, 건설기계사업자는 대어 112개소, 정비 54개소, 매매 26개소, 폐기 8개소로 총 200개소이다.

운수 전체차량등록 대수는 총 50만4천604대이며 이 가운데 승용차는 41만6천362대, 승합차 1만7천255대, 화물차 6만8천682대, 특수차가 2천305대다. 그리고 영업용 차량은 시내버스 855대(시내 750, 지선 565, 마을 40), 일반택시 2천159대, 개인택시 3천623대, 화물 8천540대가 있다.

수출·입 2015년 말 기준 수출은 729억4천400만 달러로 2014년 대비 21%가 감소했고 지역 5대 주력 품목인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자동차부품은 554억4천400만 달러로 수출액 중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325억1천300만 달러로 2014년 대비 59.2% 감소했다.

농업 2014년 말 기준 경지면적은 1만1천369ha 중 논 6천508ha(57%), 밭 4천861ha(43%)다. 농가호수는 1만1천559호, 농업인구는 2만9천687명(전체인구의 2.5%)으로 호당인구는 2.6명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0.98ha이다.

축산업 2015년 말 기준 가축사육 실태는 한우 1천865가구 3만2천631마리, 젓소 21가구 1천195마리, 돼지 327가구 3만8천505마리, 닭 481가구 51만1천24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2015년 말 기준 소 1만8천305마리, 돼지 10만4천425마리를 도축해 식육으로 공급했다.

임업 2015년도 12월 말 기준 임야면적은 총 6만8천917ha로 국유림이 5천750ha, 공유림 2천320ha, 사유림 6만847ha이다. 임상별로 성림지 6만6천497ha, 미림목지 1천657ha, 제지 763ha다.

수산업 2015년 말 기준 해안선은 총 166.76km이며 어항은 27개소이다. 이중 국가어항은 2개소, 지방어항 4개소, 어촌 정주어항 9개소, 마을공동어항 12개소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940가구에 2천565명이다.

관내 어선 세력은 881척, 4천821이며 어업권은 마을어장 등 총 85건 1천316ha이다. 한편 수산물 생산량은 연간 2만1천10에 달하며 수산물 총생산 금액은 연간 평균 764억8천만원 정도다.

사회

사회복지 2015년 말 현재 보호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4천942가구 2만1천375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396억원을 지원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가운데 초등학생 615명, 중학생 534명, 고등학생 820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등 8억원을 지원했다.

2015년 말 자활기반조성을 위해 608명에게 49억원, 65세 이상 노인 6만5천935명에게 기초연금 1천429억원을 지원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등 1만5천12명에게 158억원, 장애인의 자립과 이동권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콜택시, 활동보조서비스 등에 272억,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활시설 운영 및 주단지 시설 확충 등에 214억, 장애인단체 보호육성을

위해 12개 단체에 18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노사관계 2015년 들어 울산의 주력산업인 화학, 조선, 자동차 산업이 중국의 약진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반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연장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관련 입법안 제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한 대립구도의 노사관계가 형성됐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연내에 임단협을 타결해 지역경제에 다소 안정적인 역할을 했다.

소방 2015년 말 현재 울산시 화재발생 현황은 한해 총 874건이 발생해 51명(사망 6, 부상 45)의 인명피해와 4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14년도에 비해 인명피해는 13.3%(6명) 증가했으나, 사망자 발생이 6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화재 건수는 1.8%(16), 재산피해는 41%(30억5천500만원) 각각 감소했다. 구조활동 현황은 1만4천652건 출동해 1만1천204건, 2천444명을 구조했으며, 사고 종류는 교통 811명, 화재 84명, 수난 44명, 산악 193명, 기계 38명, 추락 77명, 기타 1천197명이다.

또한, 구급활동 현황은 4만2천176건 출동해 2만8천635건, 2만9천810명을 이송했다. 사고 종류는 급·만성질환 9천652명, 사고부상 7천205명, 교통사고 5천434명, 기타 7천519명이다. 1일 평균 화재는 3회, 인명은 31회 7명 구조, 환자는 78회 81명이 이송됐다.

상·하수도 2015년 말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8.1%, 1인 1일 급수량은 288ℓ, 1일 평균생산량은 33만8천, 1일 정수시설 용량은 55만이다. 2015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8.8%이고 1일 하수처리량은 61만3천, 하수관로연장은 4천128km이다.

중·북구지역의 도시개발에 따른 하수 발생량 증가로 용연·방어진하수처리장의 과부하 해소를 위해 201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농소하수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다. 양산시 웅상지역에 발생하는 오수의 전량 차집하수처리를 위한 웅상(2차)지선관로 부설공사를 2015년 6월에 준공했고, 태화강 유입수의 현저한 감소로 유지수 추가 공급 시급으로 굴화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사업을 2015년 8월 준공했다.

도로 2015년 말 현재 총 6천497개 노선, 총 개설연장 3천371km이며 이 가운데 고속도로 3개 노선 74km, 일반국도 5개 노선 186km, 국가지원지방도 1개 노선 17km, 광역시도 2천206개 노선 1천353km, 구·군도 4천49개 노선 1천299km, 농어촌도로 145개 노선 376km, 비법정도로 88개 노선 67km이다. 또한 도로율은 17.68%, 도로개설률 54.20%, 포장률 96.26%, 계획도로율이 32.62%이다.

보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6, 병원 86, 의원 555, 한의원 282, 치과의원 357, 보건소 5, 보건지소 8, 보건진료소 11 등 총 1천310개소다. 의약품 판매업소로는 약국 392, 의약품도매상 31, 약업사 7, 한약도매상 11, 한약업사 13, 의료기기판매업 666 등 총 1천120개소가 있다. 공중위생업소는 2015년 말 현재 속박업 768, 목욕장업 207, 이·미용업 3천373, 세탁업 545, 위생관련업 581 등 모두 5천474개소,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 등 10개 업종 2만4천885개소이다.

문화

문학 울산시문인협회는 해마다 기관지 '울산문학'을 발간하고 있으며, 울산·처용수필문학회, 시인동인변방, 울산새글회, 오영수문학상위원회 등 분야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후학들을 위해 울산시조백일장, 오영수문학제, 서덕출문학제, 박상진 의사 추모 글짓기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술 문화예술회관(울산, 북구, 울주), 현대예술관, CK아트홀 등에서 연중무휴로 미협 회원전, 작가초대전,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한·중 미술교류전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연극 극단 '물의 진화', '세소래', '울산', '푸른가시', '무', '울산씨어터예술단', '하얀코끼리' 등의 극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울산연극제', '울산 청소년 연극제', '전국연극제' 등 다양한 연극 행사가 개최된다.

문화행사 매년 새해 아침에는 한반도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간절곶에서 '간절곶 해맞이 행사'가 개최된다. 10월에는 울산의 향토종합축제인 '처용문화제'가 성대하게 개최되고, 한 글날을 전후해 지역단위에서는 종합한글예술제인 '한글문화예술제'가 개최된다.

또한, 구·군별로도 중구의 태화강문화거리축제(9월), 남구의 고래축제(6월), 동구의 조선해양축제(7월), 북구의 쇠부리축제(5월), 울주군의 연양봉계한우불고기축제(10월) 등이 해마다 특색있는 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문화시설 울산박물관을 비롯한 10개의 박물관과 4개의 문예회관, 문화원 5개, 7개 극장, 야외공연장, 유원지, 520개 공원, 공설운동장, KBS울산홀, 기념관 1개 등이 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은 1천484석의 대공연장, 472석의 소공연장, 650석의 야외공연장 외에 전시장 4개, 야외전시장, 회의실, 연습실 등을 갖추고 있다. 북구문화예술회관 482석의 중공연장, 300석의 야외공연장 외에 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울주군 문화예술회관도 387석의 공연장, 동구 꽃바위문화관은 157석의 공연좌석을 갖추고 있다. 태화루 건립사업은 문화재 시·발굴조사 및 암벽복원공사, 태화로 확장공사, 휴게문화동 골조공사, 목공사 및 기와공사를 거쳐 2014년 4월에 준공했으며,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립미술관 건립은 2012년 9월에 울산초등학교로 부지를 결정했고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해 국보 2, 보물 9, 사적 6, 천연기념물 4, 중요민속문화재 2, 등록문화재 6, 시 유형문화재 5, 시 유형문화재 32, 시 기념물 46, 시 민속문화재 1, 시 문화재자료 29개소 등 총 142개소가 있다. 관광명소로는 주전 정자해변, 대왕암공원, 일산해수욕장, 진하해수욕장, 석남사, 반구대암각화, 천전리 각석, 작천정, 신불산, 가지산, 등억온천, 박제상유적지, 망부석, 울산대공원, 태화강대공원, 간절곶 등이 있다.

의회활동

원구성

〈의정〉 박영철(새누리당)

〈부의장〉 허 령(새누리당), 배영규(새누리당)

〈정당별의석〉 새누리당 21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의정 주요 활동 및 성과 2014년 7월 1일 출범한 이래 제167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174회 2차 정례회까지 8차례 회기운영을 끝으로 201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 적극적인 시정 견제 및 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 등 120일간의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통해 원안가결 174건(94.1%), 수정안가결 8건(4.3%), 기타 3건(1.6%) 등 총 185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또, 시정질문 13건, 서면질문 78건, 5분 자유발언 82건을 통해 교육·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 마련, 시민편익과 직결된 각종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치,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 등 시정의 비판과 견제기능에도 충실했다.

집행부에 대한 정책견제와 감시 및 대안제시를 위해 시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요구 55건, 건의사항 346건 등 총 401건을 지적해 시정 및 개선토록 했고,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울산시와 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울산시는 3조2천343억9천831만원을, 교육청은 1조3천860억7천645만원으로 확정·의결했다.

특히, 상임위원회별로 활발한 현장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요 사업의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반구대 암각화, 대운산 치유의 숲 조성현장, 울산대교 공사현장 등 시의원 전원이 주요 사업장을 둘러봄으로써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시의회 차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 지역현안에 한발 빠른 대응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울산광역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산재모병원 건립 촉구 결의안' 등 10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관련 부처에 발송하고, 원전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등 왕성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는 등 120만 울산시민의 불편사항과 각종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현안들을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

또, '죽전교차로 설치 요구' 등 47건의 민원에 대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사안에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등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의 활동도 강화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

지나온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정홍보관을 운영해 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터넷 생방송과 모바일 생방송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공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를 수시로 보완·개선해 다양한 의정활동 자료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회기가 없는 동·하절기에는 의원들이 일일 근무를 실시해 의회를 찾는 민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항상 개방해 총 41회 1천682명의 시민과 학생이 방청 및 참관(견학)했으며, '청소년 모의의회 교실', '의회사랑 스피치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 데 힘썼다.

•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정활동 실천

2015년 한 해 동안 28건의 입법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전 문성을 강화했다. 특히, 시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적극 부응하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 지난해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4개 분야 18명)는 분과위원회 중심의 자율적 운영을 활성화해 시의회의 주요 현안은 물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 제언을 하기도 했다.

또,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착시키고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해 맞춤형복지전달체 계지원연구회, 도시품격발전 연구회, 안전도시울산연구회, 신성장동력연구회, 안전울산교육연구회, 산업단지주변지역발전연구회 등 6개 의원 연구단체는 2015년 한 해 동안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쳤다.

역사적으로 삼한시대엔 마한에, 삼국시대엔 백제에 속했으며, 통일신라시대 때 연기현에서 연기가 유래됐고, 조선시대 고종 32년(1895년)에 연기군과 전의군으로 개정되고 1914년 이후 연기군으로 통합됐다.

최초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이 현재 공주시 일대를 후보로, 설계·진행됐었다. 마지막 대통령 인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중단됐다.

이후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을 발표했다.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남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 공약 실현을 위해 2003년 4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을 발족시켰다. 2003년 7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입법·예고됐고,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합의로 가결(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 등)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수도 이전은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로 일부 행정 부처만 이전하게 됐고, 정부는 2006년 건설교통부 외청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설립했다. 2006년 12월엔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했다.

2011년 12월 주민들의 첫 입주가 시작됐고, 2012년 4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교육감·국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각각 유한식·신정균·이해찬 등이 선출됐다.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정식 출범함에 따라 연기군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됐다. 이후,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거쳐 7월 1일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이춘희 시장이 취임했다.

시청 조직은 2015년 12월 말 기준 1실 5국 1본부 33과이며, 시청 공무원은 일반직 1천144명, 소방직 240명, 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기타 55명 등 총 1천439명이다.



세종특별자치시

市花 : 복숭아꽃 **市鳥** : 파랑새
市木 : 소나무 **캐릭터** : 새빛이, 새날이

시청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본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원수산로 36(별관)

시장 : 이춘희(李春熙)

개 관

연혁 세종특별자치시는 서울에 너무 많은 행정기관, 인구 등이 밀집돼 있어 이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충청남도 연기 및 공주의 일부 지역에 국가 행정기관 등을 이전시키기 위해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다.

세종특별자치시 면적·인구·행정구역

(2015년 12월 31일 현재)

구분	면적(k㎡)	인구(명)				행정리	법정리(동)	통	반
		계	남	여	외국인				
합 계	464.8	214,343	105,752	105,132	3,459	263	125(14)	106	2,084
조치원읍	13.7	47,139	23,523	22,640	976	32	14	-	520
연 기 면	43.9	2,668	1,365	1,195	108	15	9	-	58
연 동 면	28.3	3,894	1,917	1,810	167	26	10	-	69
부 강 면	27.8	6,916	3,527	3,172	217	31	8	-	88
금 남 면	78.1	9,987	5,084	4,680	223	43	27	-	168
장 군 면	53.2	6,087	3,098	2,716	273	23	14	-	93
연 서 면	54.6	7,919	4,035	3,660	224	26	13	-	128
전 의 면	62.4	7,007	3,438	3,231	338	33	15	-	104
전 동 면	57.7	4,323	2,231	1,887	205	23	11	-	60
소 정 면	16.5	3,046	1,486	1,396	164	11	4	-	33
한 솔 동	14.9	21,512	10,398	10,835	279	-	(9)	22	180
도 담 동	4.7	29,263	14,058	15,080	125	-	(2)	27	160
아 름 동	8.6	64,582	31,592	32,830	160	-	(3)	57	423